

한미 전문가 '동물교감치유'

사회적 가치 실현 논의

오늘 농진청서 심포지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동물교감치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오늘 농촌진흥청개발센터에서 연다.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동물교감치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국 동물교감치유 이수(논점)와 앞으로의 과제(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대 오브레이

파인 교수) △인지 심리학에 기반한 인간동물학 최신 연구(미국 텍사스텍대 필립 마살 교수)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국내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현황(원광대학교 김옥진 교수) △동물교감교육 연구 동향과 당면 과제(국립축산과학원 유지현 농촌지도사) △치유도우미견의 복지 중요성과 실천 방안(공주대학교 김병수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반려동물과 치유농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동물교감치유 연구와 서비스

산업 연계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라며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물교감치유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의 치유 가치에 주목하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물교감교육 모델을 개발, 효과를 밝혀 왔다. 특히, 특수학교 지적장애 학생 대상 토끼와 교감하는 교육을 한 결과, 또래 상호 작용 25.2%, 안정감 47.2%, 내적 통제 59.8%, 성취 동기 62.8%, 호기심 79.0% 높아져 등 정서 안정에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상 기자



연말정산 실무강좌 교육

전주상공회의소는 27일 전주상의 7층 대강당에서 도내 기업체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토안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가 강사로 나와 연말정산 개요와 사전준비 절차, 정산시기 및 정수의무자, 세액징수와환급절차 등에 관한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시니어 모드' 신설

농협상호금융, NH 코뱅크 4.0 출시... 금융상품 메뉴도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 NH코뱅크 4.0을 23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간편 송금을 보다 간소화하여 고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메인화면을 보다 단순화한 '시니어 모드'와 '금융상품' 메뉴를 신설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가입 가능한 비대면 금융상품인 '꼭!BASIC 패키지'와 '예적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들의 비대면 상품 선택

의 폭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출시되는 '꼭!BASIC 패키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거래장 사용여부, 플랫폼 사용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0%(예·적금은 0.6%)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코뱅크에서는 기존에 조합원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던 출자 및 배당금 조회 그리고 영농회와 작목반별 일일과 더불어 '농촌인력중개' 및 '농업인행복콜센터' 등 농민 실이서비스를 확대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이번 NH코뱅크 4.0은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NH코뱅크가 단순한 뱅킹앱을 넘어 '농·축협 특화 비대면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NH코뱅크 4.0 고도화 업데이트를 기념해 12월 15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규 금융상품 가입고객 및 콕푸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스타일러, 온수 매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콕푸드 이벤트를 통해 여행상품권과 콕푸드 금액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 3기 해단식

aT, 한국 농식품 해외수출 확대 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재한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 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는 2017년부터 수출시장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라품목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 중인 한국 농식품 글로벌 서포터즈이다. aT는 올해 5월부터 총 21개 국적의 재한외국인 200여 명과 함께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재한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 3기 해단식'이 열렸다.

100여개 국내 제품을 대상으로 맛과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품평회를 열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그동안의 품평회 활동을 바탕으로 마케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보는 재한외국인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아

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되었다. 총 23건의 아이디어 중 서면평가와 현장발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과제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할랄로고' 제작 필요성 ▲멕시코, 증류주 소비 규모가 큰 나라로 '소주'가 유망 ▲미얀마, '두부' 섭취량이 많은 나라 맞춤형 마케팅방안 ▲인도, 현지 길거리 음식으로 '떡볶이'가 유망 ▲폴란드, 젊은 여성이 선호할 '막걸리'와 패키지 제안 등이다.

aT는 외국인들이 제안한 이번 아이디어와 품평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거쳐 수출시장개척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출중인 수출업체에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향후 신홍시장 마케팅스트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자체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7일 전북도청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

건협 전북도회, 전북도 감사관실과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자체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7일 전북도청 감사관실(감사관 박해산)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북도회는 부실공사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전라북도지사 감사추진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무분별한 원가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안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윤방섭 회장은 "도내 건설업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건설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래의 업계는 지자체공사 수주에 성공해도 수주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족한 공사비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실정일 정도로 적정공사비의 책정 여부가 핵심이 되었다"며, 이런 실정을 감안해 감사관실에서 "가격상징

단계에서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공기 산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회장은 "공사의 중단·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적극 반영하여,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 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연장하고, 필요한 간접비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해산 감사관은 사면초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을 표시한 뒤,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견인, 수요자 중심의 도용되는 감사행정 구현,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주임실 농어촌공 '찾아가는 물관리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27일 공사 사업구역인 전주, 완주, 임실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찾아가는 물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관리 설명회에는 농업인 단체장을 비롯, 공사 주요고객인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등 오피니언리더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농어촌의 발전방향에 관한 홍보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건강과 재산관리 특강,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심덕섭 전주완주임실지사는 "계속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수자원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급수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업관련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심지사가 밴드동호회의 일원으로서 직접 밴드공연을 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병행해 농업인들에게 친근한 분위기로 다가갈 수 있었다. /김윤상 기자



강병문 농어촌공 기반조성이사 동진지사 찾아 토론회 열어

강병문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 27일,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를 방문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강 이사의 동진지사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SOC 자금집행 독려와 사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하기 위함이다.

강 이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강환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10개 지사 지사장에게 "우리 공사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어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배정된 예산을 적극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동정기를 맞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관계 직원의 다짐도 받았다. /김윤상 기자

'쓸수록 우대금리가 커지네'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전용 상품 '올원캐디예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를 쓸수록 우대금리가 커지는 올원뱅크 전용 정기예금상품 '올원캐디예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원캐디예금은 올원뱅크에서 출석 체크, 송금, 상품가입, 환전 등을 이용하면 적립되는 올원캐디를 우대금리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예금 만기일 전일까지 적립된 올원캐디 100개당 0.1%(p)의 우대금리로 교환할 수 있어, 총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이다. 우대금리 전부 추측 시 27일 기준 최고금리는 1.95%이다.

올원뱅크 앱으로 1인 1개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김장근 본부장은 "올원뱅크 이용고객이 쉽게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정기예금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디지털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12월 31일까지 올원캐디예금을 비롯한 디지털 신상품 4종(올원5늘도적금, 올원캐디예금, 올원미이너스대출, 올원직접인대출) 중 1종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16명을 추첨해 1등 갤럭시시플, 2등 코드제로A9 등을 제공하는 금일몽 Big이벤트 4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종 이상 상품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여행상품권 100만원권(3명)도 추가로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시제품제작 운영기관 협의회 포럼 개최

도·경진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운영 노하우 논의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26일 전북시제품제작 운영기관 협의회 포럼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시제품제작 운영기관 협의회는 시제품제작관련 지원사업을 실행 중인 도내 13개 운영기관이 모여 제조기반의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은 특별히 서울지역 메이커스페이스 전문팀(G-camp)을 운영 중인 서울산업진흥원의 박기태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노하우'와 '수도권 지역의 메이커 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팀인 G-camp는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단지에 소재해 있으며 2018년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중소벤처기업

부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도내 시제품제작 지원을 위해 모인 운영기관 협의회는 20개의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진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시제품제작소, 완주군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원광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통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도내 시제품제작 운영기관 실무자들의 역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운영으로 2020년에도 내실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안주서 연탄 나눔 봉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27일 어려운 이웃에게 난방용 연탄과 선물을 전달하는 '이웃 나눔 봉사'를 가졌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 직원 20여 명은 안주군 이서면의 장애인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 2곳을 방문해 난방용 연탄 600장과 연구개발 성과를 만든 제품을 전달했다. 또한, 전문가적응을 위한 시설팀 직원들은 재능기부로 고장 난 가스레인지 교체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시설을 수리했다.

양정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봉사 활동을 확대하겠다"라며 "추운 날씨지만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